오늘 읽으실 말씀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아주 극적인 내용의 결말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온 형들에게 드디어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내용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다름아닌 요셉이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고 죽이려 하다가 애굽에 팔아 버렸습니다. 20여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그 기억은 모두에게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형들에게도 양심의 가책이 되었고 아버지 야곱도 이 일로 오랫동안 슬퍼하며 지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곡식을 사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의 보따리에서 요셉의 은잔이 발견되어 다시 요셉 앞으로 끌려 왔습니다. 처음 왔을 때에는 자신들이 가지고 왔던 돈이 곡식 자루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 때에는 그 돈과 곡식 살 돈을 2배로 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왔습니다. 요셉 집의 청지기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여 오해도 풀렸습니다. 형들의 염려와는 달리 애굽 총리의 집에 초대되어 식사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보따리에서 또 다시 뭔가가 발견된 것입니다.

이번에 발견된 것은 애굽 총리의 은잔이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베냐민의 보따리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형들의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도 없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하필이면 아버지를 겨우 설득하여 데리고 온 베냐민이었습니다. 요셉 형들의 머리 속에는 먼저 아버지 야곱의 얼굴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풀어야 할지 도무지 해결책이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소리 내어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자신이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애굽 총리의 입에서 요셉이라는 이름을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권세 높은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이 팔아 넘긴 자신들의 동생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상황 판단이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혈육을 다시 만난 것은 분명 기뻐할 일 이었지만, 요셉을 팔아 넘겼을 때의 기억이 동시에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형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서 무슨 말을 해야 할 지 몰랐습니다.

요셉이 가까이 오라고 부릅니다. 요셉의 첫마디 말에 형들의 가슴이 철렁하게 내려 앉았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그런데 곧 이어서 요셉

이 놀라운 말은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 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형들이 잔뜩 긴장하여 요셉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이 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오 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이 애굽으로 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그 일을 행한 것은 요셉의 형들이 한 행동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좋은 뜻으로 한 행동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비록 형들이 나쁜 마음으로 요셉을 밀어내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부터 시작하여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는 긴 여정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애굽에 팔려 온 것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형들을 오히려 위로하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만일 우리가 요셉의 입장이었다면 요셉의 지위를 이용하여 형들에게 제대로 벌을 주고 싶지 않았을까요? 요셉은 형들을 2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 만나게 되었지만 단순히 반가운 마음에 즉흥적으로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나를 이 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먼저 애굽에 팔려온 이후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현실 상황이 점점 어려워 지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요셉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형통하였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시각에서는 참담한 상황이 계속해서 일어났지만 요셉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께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진정한 형통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꿈대로 7년 풍년 후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 전 풍년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혹독한 가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형들도 애굽에 곡식을 사러 온 것이었습니다. "아! 형들을 이렇게도 만날

수 있구나!" 형들을 심문하는 과정 중에 아버지께서 아직 건강하게 살아 계시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시로구나" 요셉이 17세 소년이었을 때 꾼 꿈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꿈은 요셉의 개인적인 입신영명에 대한 비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그 아들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을 먼저 보내셨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형들의 행동은 자연히 용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형들을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깨달은 요셉이 형들에게 계속 섭섭한 마음을 품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지난 날은 분명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던 세월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결과를 보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의 원인과 결과가 밝히 드러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 자신의 마음의 응어리는 풀어지고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악한 일을 행하여 죄를 범했던 형들이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야곱도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보내준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길을 떠나기 전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야곱에게 임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도 함께 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는 복된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떠하든지,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현실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형편이 좋을 때에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형편이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시는 분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 분만을 믿고 그 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동시에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